

2022

2022.09.22

Newsletter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09 | 22

HIS Message



General News



Devotion



ES News



HIS Spot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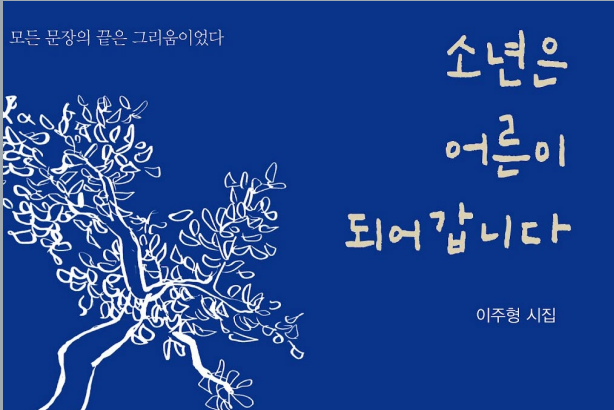
이사야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Isaiah 53:6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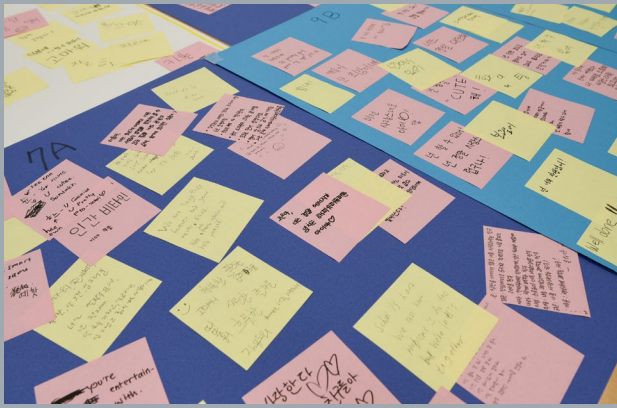
MHS News



Nurse's Office News



Counselor's Office News



Creative Corner



Library News



HIS Message



01

By 박에스터 | 초등 학생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롤 모델이 되려면

Becoming a Role Model

제겐 여러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신 선생님들을 만난 것은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고등 시절 아이오와주에서 아주 작은 기독교 기숙학교에 다녔습니다. 기숙사에는 60여 명의 학생들이 지냈고, 선생님들도 각자의 가족과 함께 캠퍼스에 거주하였습니다. 모든 교사와 학생들은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다니고, 식사를 같이 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눈을 치우는 등의 여러 일들을 함께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선생님들의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좋은 시기와 어려운 시기에 일관된 모습으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보았습니다. 수업 시간과 그 외의 시간에도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불평 없이 많은 책임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 교사의 경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방법과 자녀들을

I can say I am truly blessed because I have several role models in my life. I had the privilege of witnessing teachers who set good examples up close. I attended a very small Christian boarding school in Iowa for my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There were about 60 dorm students and all the teachers and their families lived on campus with the students. All the teachers and students worshiped at the same church, did school together, ate communal meals, and did chores such as washing dishes, shoveling snow and many more together.

Various aspects of teachers' lives were visible. So naturally over the years, I observed and noticed how they lived. I observed the teachers' commitment to the school through good and bad times. I noticed how they bonded with students in and out of classrooms. I saw how they took on multiple responsibilities without any

양육하는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지, 어떤 책을 읽는 지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난 모습은 금방 알아차렸으며, 회복하는 방법 또한 기억해 두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교사로서, 그 때 보았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교사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존경하며 따르던 그 분들이 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서는, "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합니다. 비록 제 고등학교 시절 이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당시 선생님들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현재 저의 삶에 여전히 좋은 가르침과 동기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저의 롤모델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방법 중 하나는, 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먹을 때, 대화할 때, 화를 낼 때, 모두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롤모델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 순간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바라건대 나의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관찰하며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놀라운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complaint. I learned how a married couple should treat one other with affection and respect. I observed how they discipline their own children. I knew how they spent their time on weekends and the kinds of books they read. I definitely noticed when they got angry and noted how they reconciled. In summary, I observed those teachers putting in an effort to live up to their own teachings.

Now that I have become a teacher myself, I reflect on those teachers' lives quite often. They have become the standards that I look up to as a teacher and also as a fellow Christian. When I get stuck I can ask, "What would they have done?" Even though my high school years are long gone, their lives are still teaching and encouraging me to live every aspect of my life as a disciple of Jesus. They are my role models.

One of the ways to become a role model is to walk the talk. It means to try to live as a Christian in all aspects of life, not just the church life. Children watch us when we eat, listen to us when we talk, observe us when we get angry. When we try every moment to live like a follower of Jesus, who is our ultimate Role Model, hopefully someone close by is observing you and following you. There is great power when our words and actions are one.

Devotion



02

By 앤드류 김 | 중고등 성경 교사
Mr. Andrew Kim · MHS Bible Teacher

'가난'이 좋은 말일 때

When 'poor' is a Good Word

"가난"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결핍," "아무것도 없음," "파산," "취약함," "나약함," "부족함"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낮게 여기거나 심지어 어떤 면에서 불운하거나 저주 걸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가난"이 다른 단어와 함께 쓰일 때, 주로 "낮은 점수," "아쉬운 도전," "부족한 효과"의 의미로 받아 들여집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이 부정적인 어감을 볼 때,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실 때, 다른 용어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을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는 '심령이 부요한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수훈에서 가난을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5:3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대목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When you think of the word, "poor", what words come to mind? We may think of words like "lacking," "nothing," "broke," "vulnerable," "weak," "not good enough". The word "poor" is generally seen as a negative word. The world looks down upon those who are poor and even sees those who are poor as having bad luck or cursed in some way. And when the word "poor" is attached to other words, it usually means something bad like "a poor grade", "a poor try", "a poor effort". So with all this negativity surrounding the word "poor", you would think Jesus would have used a different word to start off the Beatitudes in his Sermon on the Mount.

Upon first glance, people may think "Wouldn't you rather be 'rich in spirit' than 'poor in spirit?'" However, when Jesus uses it during his "Sermon on the Mount", poor is used as a good word. In Matthew 5:3, Jesus said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Here, not only does Jesus say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are blessed, but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them. What Jesus is saying here is that unless you are poor in spirit, you can 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God's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매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며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져야만 부요해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그분의 왕국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자만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겐 누구도 필요 없어. 특히 예수님은 더욱!" 세상은 이러한 독립적인 영혼 상태를 장려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그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마치 손에 무언가를 가득 들고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손에 젤리가 가득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젤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가득 찬 손으로 누군가에게 나아가면, 이미 차 있는 내 손 안에 다른 것을 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물이 가득 찬 잔을 들고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잔이 꽉 찼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득 찬 손과 잔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우리 생각에 좋은 것들을 계속 붙잡습니다. 우리의 손과 잔을 비울 때에야 비로소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또한 넘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나아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나의 손과 나의

kingdom belongs to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So what does being "poor in spirit" mean? It means to acknowledge that you are spiritually in need, spiritually bankrupt before God and only Jesus can help you. We can only do this by first acknowledging that we are all sinners who are in desperate need of God's mercy and forgiveness. This forgiveness only comes through Jesus. When we daily acknowledge our need for Jesus, we are "poor in spirit". And that is a good thing. Only when we are poor in spirit will we experience the richness and abundance of God's blessings. Only by being poor can we be rich. Only by being poor in spirit can we take those first steps into being part of His kingdom.

Those who are not "poor in spirit" have a prideful spirit where they think "I can do everything on my own! I don't need anyone, especially not Jesus!" The world tries to instill and elevate this spirit of independence. However, unless you have a spirit of dependence on Jesus, you cannot be part of His kingdom.

It's like coming to someone with full hands. Imagine your hands are full of jelly beans and all those jelly beans represent the things of this world you are holding onto. If you come with full hands, no one can put anything else into your hands because they are already full. You cannot receive anything. Or imagine you come to someone with a full cup of water and ask for more. You cannot receive anything more in your cup because it is already full. This is how many of us come to God. We come with full hands and full cups and because of this, we cannot receive what God wants to give us. We are essentially saying we don't need Him or what He wants to give us. Our heavenly Father wants to bless us, give us the best of everything. But we don't trust Him so we hold onto the things that we think are best. Only until we empty our hands and empty our cups can we receive and be filled to the overflow of what He wants to give us. So come before God with this humble attitude and just watch and see how God will

잔에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실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믿었고 율법을 지키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교만한 본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거절하며 그분의 필요를 찾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었던 이들은 누구일까요?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 등. 세상과 사회가 거절한 이들, 너무도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나아간 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나쁜 소식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며 그분 앞에 나아올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 죽음, 부활을 통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자격으로 주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귀한 보혈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며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요하여지도록 스스로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요해지려면, 먼저 가난해져야만 합니다.

fill your hands and your cup to the overflow with the richness and abundance of His heavenly kingdom.

When Jesus came to teach about the kingdom of God, the Pharisees and the Jews rejected him. They believed in their own righteousness and that they were saved by their keeping of the law (which they didn't keep). They couldn't see their own sinful and prideful nature. They saw no need for Jesus and sadly, this is the heart of many in the world who reject and see no need for Jesus in their lives. Jesus could not help the Pharisees and the Jews because they didn't want Jesus' help and didn't see their need for Jesus.

On the other hand, who were the ones who cried out and were desperate for Jesus? The tax collectors, the prostitutes, the poor, sick, lame, blind etc. All those that the world and society had rejected, all those who were so desperate and in need, they were the ones who cried out in desperation for Jesus. And Jesus heard their cries and went to them. They were "poor in spirit" and they were the ones who received Jesus' blessings and entered into His kingdom before the Pharisees and Jews who were not poor in spirit.

The bad news is that we are all unworthy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e are unworthy to even come before God as we are all wretched sinners who deserve God's wrath and punishment. The good news is that Jesus makes us worthy by hi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n the cross. Through his precious blood shed on the cross for us, we are now worthy to come before the Father and worthy to enter His kingdom. Jesus became poor so that we could be rich. But for us to be rich, we must first become poor.

HIS Spotlight

03



Ms. Gladymar Garcia

8A 담임, 중고등 영어 교사

8A Homeroom Teacher, MHS English Teacher

Q. 자라온 배경과 HIS로 오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Please share your background and how you came to HIS.

저는 푸에르토리코의 파하르도에서 태어났고, 플로리다 주 올란드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는 3년 넘게 살았으며, 한동글로벌학교에 오기 전까지 구미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디즈니 월드에서 연기자로 활동하였고, 오스콜라 주에서 대체 교사로 일하고, 갈보리교회 주일학교 유아부 교사와 연극 교사로 섬겼습니다.

I was born in Fajardo, Puerto Rico and raised in Orlando, Florida.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three years and before coming to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I worked as an English Teacher at a specialized high school in Gumi. Before that, I was a performer at Walt Disney World, a substitute teacher for Osceola county, a preschool Sunday school teacher and Drama director for Calvary Assembly of God.

한동글로벌학교는 2021년 11월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재직 중이던 구미 학교에서 이듬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한국에서 지낼 수 있을 지 불확실해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갖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의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면, 제 대답은 "네,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였습니다.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도중에, 저는 여러 학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연극 예술 학사 학위 취득자인 제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연극 교사 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동글로벌학교 홈페이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다음 자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동글로벌학교 외에 다른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다른 곳을 찾고 있니? 나는 이미 네게 그 자리를 예비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직장을 찾기를 그만 두고 한동글로벌학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I first discovered HIS in November 2021. At that time, I had learned that my school in Gumi couldn't renew my contract for the next year. I was devastated because I didn't realize my time at that school (and possibly Korea) was finished. Yet, I took courage because I found that God was, is, and continues to be faithful and true to His promises. If He said that my time there was done, I had nothing else to say but, "Okay, God. What is next?" In the process of looking for my next step, I ran into several schools. There was even a school looking for a drama teacher, which was a position I felt I was more qualified for (since I have a Bachelor's Degree in Theater Arts). However, looking at the HIS website, I could feel that that was where God was leading me next. In fact, during my efforts to look at other positions outside of HIS God said to me, "Why are you looking elsewhere? I have already given you the place." I stopped looking at other places after that and focused on HIS.

Q. 한동글로벌학교에서 지낸 첫 학기는 어떠셨나요?

How was your first semester in HIS?

한동글로벌학교에 오게 된 것은, 제가 내린 결정 중에 아마도 가장 쉬웠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여 택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지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임 교직원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학교와 교직원들에게 갖는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제 안에 기쁨이 넘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oming to HIS was probably the easiest transition I ever made because I trusted and listened to God's guidance. When I first stepped foot into the school, I felt excited to see what God would do through me. The new teachers started off orientation with prayer and the reading of God's word. As we spent time talking about scripture and what that meant for us and our school, I started to cry because I felt so much joy. I could feel that I was where I was meant to be.





첫 학기는 제게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던 것은, 돌아켜 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든 기준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학교로 인도하셨지만 목적이 불분명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여기 왜 있는건가요?"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학기말이 되자, 저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백하민 교장 선생님께서 중강식에서 학교 비전을 나누실 때, "진정한" 혹은 "진실한"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잠잠히 들으면서 "이와 같은 때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동글로벌학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지 기대합니다!

My first semester here was an adjustment. Personally, I had a hard time and, looking back now, I realize it was because I had certain expectations of myself that God had never set for me. God gave me the place and he didn't reveal His purpose for me, so I constantly found myself asking God, "Why am I here?" By the end of the semester, I received my answer. As Principal Dr. Hamin Baek revealed his vision for the school, he expressed his desire for a "genuine" or "authentic" Christian school. As he shared his vision, I felt God say, "such a time as this."

God is working here at HIS! Let's see what He does for and through us!

Q.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and what do you expect through it?

이 곳에서 저는 8, 9, 11학년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 연극 동아리 담당 교사이자 8A 담임 교사입니다. 제가 맡은 일들은 저의 꿈이기도 하며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기에 제게 매우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이 일을 통해 제가 바라는 점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교실 밖과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영어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n this school, I am an English teacher for grades 8, 9, and 11. As well as the high school Drama Club leader and class 8A's Homeroom teacher. I feel extremely blessed to be in these positions because they were a dream of mine that God made possible!

As I do my work, my hope is that students can learn to take their lessons outside of the classroom into everyday life. In the process of taking my class, I hope that they may enjoy English, learn about God, and learn more about themselves.

Q.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눠주세요.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1.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도록
2.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1. Learning to continue to wait on God
2. Focusing on God at all times

General News

학생 건강검진

Student's Health Checkup

하나님 나라 복음 세미나

Kingdom Gospel Seminar

언론보도 : 경북매일

HIS in the Media : Kyeongbuk Maeil

04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학생 건강검진

Student's Health Checkup

8월 31일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본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검진하였습니다. 키, 몸무게, 시력, 청력, 소변검사 등 전반적인 체크를 하였습니다. 검사 진행 중 초등 학생들은 다소 무서워하기도 하고 중고등 학생들은 대기하는 친구들과 즐거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나 방학 후 개학하여 학생들을 만날 때면, 학생들이 쑥쑥 자라 있는 것을 느낍니다. 건강 체크를 하는 날에도 학생들이 작년보다 듬직해지고 성숙해졌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나날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On Aug 31, students had a health checkup proceeded by the Korea Health Care Association. They had an overall test, such as height, weight, eyesight, hearing, urine, etc. During the checkup, elementary students seemed to be a little afraid, whi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njoyed themselves with their friends.

Whenever I meet students after the new seester or vacation, they seem to have grown during the time. The health checkup was also a time to see how they have matured and grown. I am grateful for the fact that students have continued their growth despite COVID-19 and other situations.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 1. 예수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
 -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비유로 설명하셨다(마 13장).
- 2. 예수의 축귀 사역과 하나님 나라
 -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까닭이라 했다(KoG has come upon you. 마 12:28; 눅 11:20).
- 3.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
 -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라는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셨다.
 - 눅 17:21, KoG already among you
 - 산에 올라가 설교하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마 6:33)하셨다.
- 4. 예수의 기도와 하나님 나라
 -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Thy kingdom come)기도하길 요청.
 - 또한 나라/권세/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선포하셨다(Yours is the kingdom).
- 5. 최후의 만찬과 하나님 나라
 -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실 새포도주를 기대하셨다(막 14:25).
- 6. 부활하신 예수와 하나님 나라
 -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40일간 나누신 핵심 주제였다(행 1장)
- 7.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 2년간 로마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파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행 28장)

하나님 나라 복음 세미나

Kingdom Gospel Seminar

By 백하민 | 교장

Dr. Hamin Baek · Principal

이번 학기에 본교 교직원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한동대학교 교목실장인 김완진 목사님을 모시고 여섯 번에 걸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배우는 세미나를 진행 중입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This semester, we are having a seminar to help HIS faculty and staff clearly understand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taught in the Bible so that they can live as Kingdom agents and help students to live as Kingdom agents. We have Rev. Wanjin Kim, Director of HGU Chaplains' Office, as the lecturer for the seminar and are learning about the kingdom gospel revealed in the Bible from Genesis to the book of Revelation in six sessions. Please pray for the lecturer and HIS faculty and staff members.





언론보도 : 경북매일

HIS in the Media : Kyeongbuk Maeil

백하민 교장 선생님의 취임식을 맞이하여 경북매일신문에서 교장 선생님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In commemoration of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Principal Hamin Baek, the Kyeongbuk Maeil Shinmun published an article about an interview with Dr. Baek.

기사 원문 보기 | See Full Article

경북 매일 신문, 2022.09.13

Kyeongbuk Maeil, Sep 13th, 2022



<https://bit.ly/3LvqjdT>

ES News



Korea Day
Korea Day

05

By 박에스더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Korea Day

Korea Day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8일,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기념하기 위해 Korea Day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채로운 한복이나 한국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등교를 했습니다. 사회 수업에서는 추석 계기 교육을 받았으며 즐거운 전통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날 하루는 학생들이 학교 건물 내에서도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다.



On September 8, right before Chuseok, elementary school celebrated Korean heritage and culture by having Korea Day. Many students came to school wearing colorful hanboks and other outfits that represent Korea. Students learned about Chuseok in social studies class, played traditional Korean games, and were allowed to speak Korean inside the building (No EPE).



모든 문장이 끝은 그리움이었다

MHS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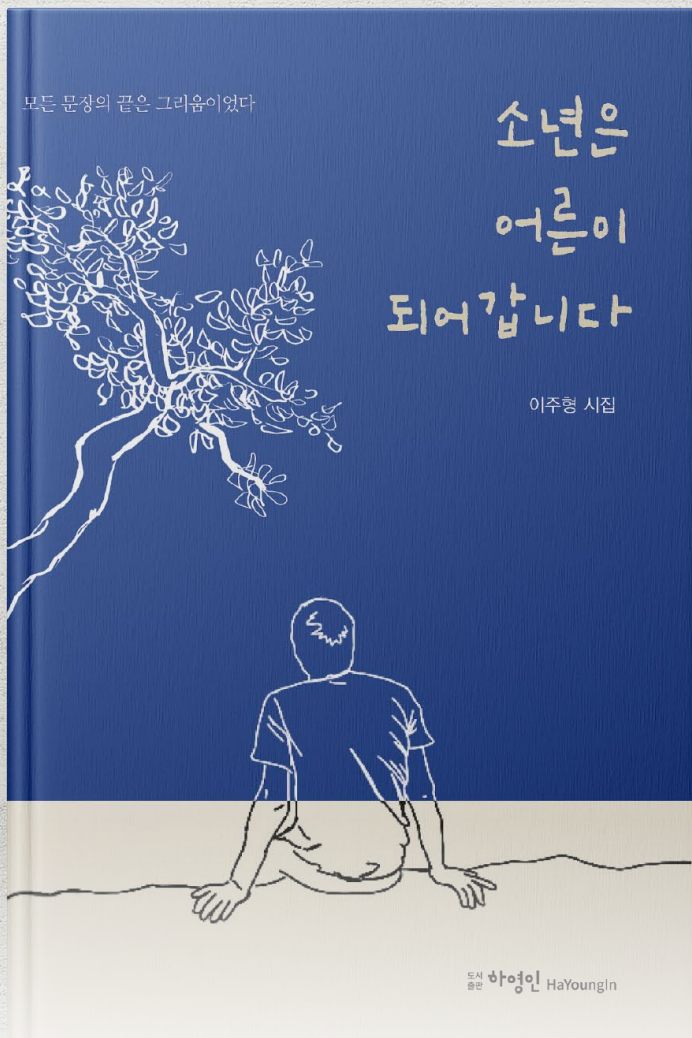
소년은
어른이
되어갑니다

이주형 시집



'소년은 어른이 되어갑니다'
'A Boy Becoming an Adult'

06



소년은 어른이 되어 갑니다

하영인, 2022
이주형 (11B) 신간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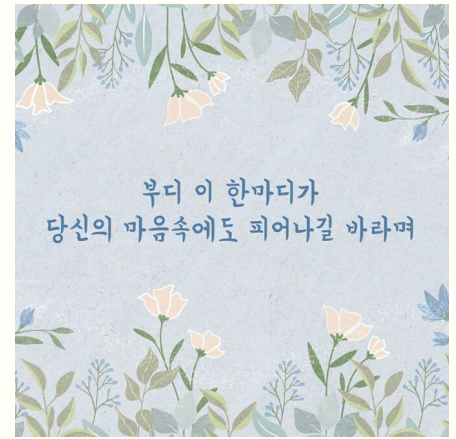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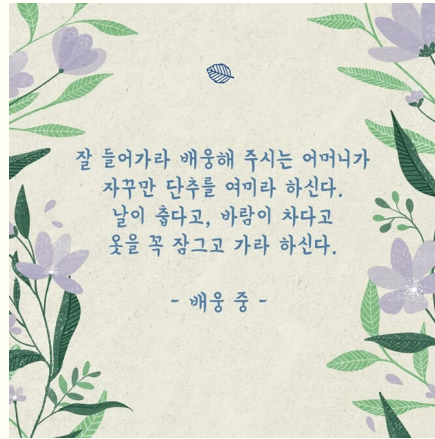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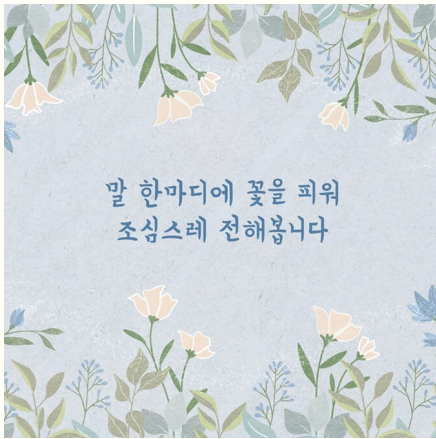
A Boy Becoming an Adult

Ha Young-in, 2022
Juhyeong Lee (11B)
Collection of poems

By **이희정 | 사서**
Ms. Hee Jung Lee · Librarian

본교 11B 이주형 학생의 시집 『소년은 어른이 되어갑니다』가 발매되어 알라딘, 교보문고, 두란노몰, 갓피플몰 등에서 판매 중입니다. 시집 발매를 위하여 박혜경 전임 교장 선생님, 꽃같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자는 의미의 인플라워(Inflower)라는 학생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그리고 하영인 출판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형이의 책 발매를 위해 많은 친구들이 꽃잎처럼 하나 둘 모여 아름다운 꽃과 같은 시집을 만들어내는 것,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으로 더욱 큰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집을 통하여 주님께서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치유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A collection of poems by Lee Joo-hyung, 11B student at our school, 'A Boy Becoming an Adult' has been released and is on sale at Aladdin, Kyobo Bookstore, Duranno Mall, and God People Mall. For the release of the poetry book, there was the help of Dr. Hae-Kyeong Park, a former principal of HIS, a project team consisting of our students called Inflower, which means to send a beautiful influence like a flower to the world, and Ha Young-in Publishing Company. I bless the students who gathered together like petals to form a collection of poems like a beautiful flower and wanted to make a bigger impact by releasing the results to the world. Please pray that the Lord will heal many who are in the midst of the pain of loss through this collection of poems.



추천사

Recommendations

먼 이국 토고 땅을 섬기는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경험을 했을 주형이는 혼자만의 고뇌와 고통을 사춘기의 정서로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내면의 에너지를 알알이 엮어서 자신과 세상을 향한 언어로 표현해냈다는 점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춘기 소년의 시어라고 보기에는 삶의 통찰이 깊었고, 그 표현이 제 가슴 속으로 훅 밀고 들어올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Juhyeong lived in Togo, a distant foreign land, at a young age with his missionary parents. Despite the difficult times he must have experienced, he did not turn his anguish and pain into feelings of puberty. It is surprising that his inner energy was intricately woven and expressed in words towards himself and the world. His poetic language showed deep insight of life in spite of his young age, with powerful expressions that rushed into my heart.

박혜경
(한동대학교 학사부총장)
Dr. Hae-Kyeong Park
(Academic Vice President,
Handong Global University)

“이 친구의 저수지는 얼마나 넓을까?”
고1 담임과 반 학생으로 만났지만 주형이는 제가 감히 제자라고 부르기도 힘들 만큼의 무게와 깊이와 넓이를 지닌 ‘어른’이었습니다. 제자이지만 스승으로 여기는 주형이 작품집에 추천사를 올리는 일은 여느 교사에게 쉬 주어지는 특권이 아님을 새삼 깨달으며 일독, 십독, 백독을 권해드릴 따름입니다.

“How wide is this boy’s reservoir?”
Though I met Juhyeong as a homeroom teacher, he was an 'adult' with such weight, depth, and breadth that was difficult for me to even call him a student. As I realize it is a privilege to post a recommendation for Juhyeong, who I consider a teacher though he is a student, I recommend reading the poems not only once but 10 or 100 times.

곽인옥
(2021학년도 10학년 담임)
Ms. In Ok Kwak
(10th Grade Homeroom
Teacher, 2021)

Counselor's Office News



학교폭력 예방교육 : 언어폭력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
Language Violence

07

By 장정은 | 상담 교사

Ms. JungEun Jang · School Counselor

학교폭력 예방교육 : 언어폭력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 Language Violence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We conducted verb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as follows.

일자 2022년 8월 31일 (수), 9월 2일 (금),
9월 5일 (월), 9월 8일 (목)

대상 7-9학년 학생

장소 남학생 : VH 306 | 여학생 : MH 304

Date Aug 31st (Wed), Sep 2nd (Fri), Sep 5th (Mon),
Sep 8th (Thu), 2022

For 7-9th grade students

Venue Male: VH 306 | Female: MH 304

내용

- ① 언어폭력의 범위와 유형 및 끼치는 영향
- ② 욕과 공격적 언어 및 부정적 언어를 사용할 경우 미치는 영향
 - 조별토론하고 발표하기
- ③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의 심리와 대처방안
- ④ 장난과 폭력 구별하는 방법
- ⑤ 뒷담화 하는 사람의 심리
 - 조별로 토론하고 발표하기
- ⑥ 뒷담화하는 사람 심리와 대처 방안
- ⑦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경우 미치는 영향
- ⑧ 긍정적 언어로 자신, 친구에게 말하고 적어주기
- ⑨ 언어폭력의 방어자 되는 법

Content

- ① Range and types of language violence and its effects
- ② Effects of using curse words, abusing and negative language
 - Group discussion and presentation
- ③ Psychology of person who uses abusive language and coping plans
- ④ How to distinguish pranks with violence
- ⑤ Psychology of person who talk behind other's back
 - Group discussion and presentation
- ⑥ Psychology of person who talk behind other's back and its effects
- ⑦ Effect of using positive language
- ⑧ Talk to and write yourself and friends with positive language
- ⑨ To be a defender of language violence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친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I am a precious person made by God.
 Friends are also precious beings made by God.



Library News



9월의 신간도서
New Books In September

By 이희정 | 사서
Ms. Hee Jung Lee · Librarian

9월의 신간도서

New Books In September

01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 교양으로 읽는 세계사 시리즈

Teacher Yong's Noisy Korean History | World history series read through culture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 시리즈는 교과서가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교과서 공부의 새 모델을 제안합니다. 글쓴이 왈 “어린이들이 보통 역사하면 외울 게 많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워하여 어린이들이 우리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재미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펴낸 시리즈입니다.

"쉽게 이해하고 단순해 정리하는 세계사"

세계사는 어렵다는 편견과 오해에 종지부를 찍어줄 책입니다. 초등 한국사 베스트셀러 <용선생 한국사>의 용선생이 세계사 수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한국사 수업으로 입증된 바 있는 용선생의 탁월한 입담이, 세계사를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운 공부로 탈바꿈 시켜줍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 세계사 상식을 넓히고 싶은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역사 교양서입니다.

세계사를 처음 접하는 독자도 막힘 없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머릿속에 또렷하게 저장할 수 있는 겹겹의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충실한 시각 자료가 생생하게 역사 현장을 중계합니다. 인물과 용어 풀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핵심 퀴즈와 정리 노트, 만화가 이우일의 재치 있는 일러스트를 통해 입체적인 세계사 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he 'Teacher Yong's Korean History Textbook' series proposes a new model for children who think studying textbooks is difficult and boring. According to the author, "as history is known as a subject that requires memorizing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children to approach, I wanted to make it interesting to learn." The series was published "that it must not simply be fun, but helpful to learn history correctly."

"World history easily understood and organized at once"

A book that will put an end to the prejudice and misunderstanding that world history is difficult. Teacher Yong of the best-selling elementary school Korean history <Teacher Yong's Korean History> is back with a world history class. Yong's excellent wit, proven in Korean history classes, transforms world history into an incomparably enjoyable study.

It is readable for children, students, and readers of all ages who want to broaden their knowledge of world history. It is readable enough for even readers who are new to world history to be able to read it with ease. Not only is it easy to understand, but there are also layers of devices that can be stored clearly in the head. Unmatched visuals bring the historical scene to life. Characters and terminology are adequately placed, and readers can learn three-dimensionally through quizzes, summary notes, and witty illustrations by cartoonist Woo-il Lee.

02 네버랜드 자연학교 시리즈 Neverland School of Nature Series



‘바다’, ‘돌’, ‘에너지’ 등 12권으로 이루어진 [네버랜드 자연학교]는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글을 썼어요. 일상과 자연을 연결한 풍부한 지식을 만나고 실천해 보아요.



[Neverland School of Nature], which consists of 12 books including 'Sea,' 'Stone,' 'Energy,' etc. is written by top experts in each field, including those from the National Arboretum,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et al. Discover and practice rich knowledge that connects everyday life with nature.

03 한국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원작 신주영 작가의 법정에세이 Court Essay by Shin Joo-Young, the original author of the Korean drama [Extraordinary Attorney Woo]



신주영 변호사의 [법정의 고수]를 비롯한 법정 관련 책은 ‘법’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법정이 얼마나 창조적인 장소인지 실감나게 전해줍니다. 책 속에 들어 있던 것은 단순한 사건 소재가 아닌 의뢰인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변호사들의 뜨거운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초등부터 중고등, 일반까지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신주영 작가의 법에 관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Court-related books, including Lawyer Joo-Young Shin's [Master of the Court], depict how 'law' is close to our everyday lives and how the courtroom can be a creative place. The book not only contains the subject of cases, but also the strong passion of lawyers who are willing to do whatever it takes for their clients. Introducing books related to law, by Joo-Young Shin, which can cove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adult readers.

중고등 캠핑 트립 중 제주 4.3 유적지 관련 참고 도서

Reference 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 Camping Trip (Jeju 4.3 Historical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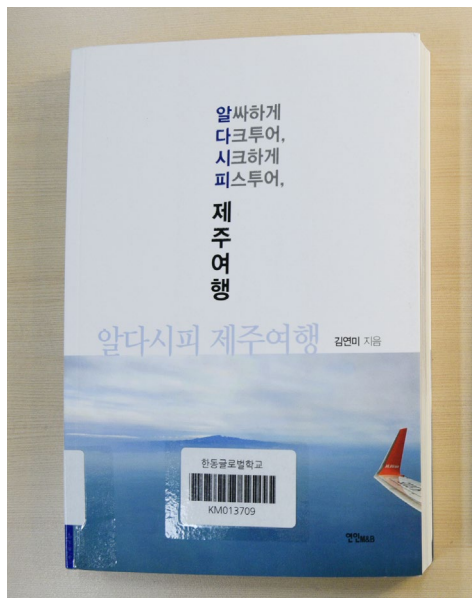
01 현기영 소설, 『순이 삼촌 Sun-I Samch'on』 (바이링귈 에디션) Ki-young Hyun's novel, 'Sun-I Samch'on' (Bilingual Edition)



현기영의 1978년 작인 단편소설로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화자인 주인공의 시점을 통해 당시에 있었던 일을 겪은 인물들과 중심 인물인 순이 삼촌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t is a short story written by Ki-young Hyun in 1978, focusing on the Jeju 4.3 incident,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main character, the narrator, and the story of the central character, Sun-I's uncle.

02 제주 시인 김연미 작가의 『알다시피 제주여행』 Jeju Poet Yeon-mi Kim's 'Jeju Travel As You Know'



제주 출신 김연미 시인의 제주 4.3 다크투어 안내서입니다. “제주를 찾는 사람들의 제주여행 일정 속에 제주 4.3의 장소 한두 군데 끼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 장소에 관련된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결국엔 제주 다크투어를 넘어 제주 피스투어를 위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제주가 되었으면 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This is a Jeju 4.3 Dark Tour guide by poet Yeon-mi Kim, a native of Jeju. “In the end, Jeju Tour goes beyond the Jeju Dark Tour,” with the desire “that there will be one or two places of Jeju 4.3 in the travel itinerary of those who visit Jeju” and “to hear the stories of the people of Jeju related to that place.” It is a place where the poet's earnestness will appear with heavy emotions, “that people visit Jeju once more to have a Jeju Peace tour.”

우리 도서관에서는 매일 실시간 구글 시트를 통해 희망도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 학생생활 > 도서관에 링크가 공유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In our library, we are receiving **Book Requests** by Google Sheets every day.
The link is shared on the School website > Student Life > Library.
We ask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https://bit.ly/3faMPfO>

Nurse's Office News

근육통
Muscle Pain

환절기
Change of Seasons

09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근육통

Muscle Pain

근육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방문하는 친구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근육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까요?

무리한 운동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근육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만큼 흔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근육의 통증 원인이 반드시 근육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운동이나 외상, 근육의 무리한 사용이 원인이지만 그 밖에도 감염, 류마티스, 혈관장애, 호르몬 이상, 약물 등 다양한 원인으로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한 뒤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오는 근육통은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근육을 길게 늘렸다가 수축시키는 힘으로 인해 발생하며 운동을 막 시작한 사람이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이 있을 때는 곧바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으며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운동 후의 적절한 수분과 영양공급, 충분한 휴식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근육통이 7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운동 강도가 다소 강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동 강도를 낮추었다가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근육통은 치료를 요하는 증상은 아니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근육통과 함께 뻣뻣함 등의 감각이상, 심한 피로감이 있는 경우, 근육 통증으로 인한 운동 기능 장애가 생겼거나 피부의 염증이나 발진, 두통, 변비나 설사, 복통, 불안감, 수면장애 등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섬유성 근육통이나 다발성 근염 등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The number of students with muscle pain has recently increased in the nurse room. Let's learn about muscle pain!

After excessive exercise or getting wounded, anyone can feel pain in the muscles. But muscle pains are not only caused by muscles. Normally it is often caused by exercise, injuries, excessive use of muscles, but various things such as infection, rheumatism, vascular disorder, hormonal abnormality, drugs, etc. could also be the cause.

Muscle pains are natural symptoms which occur after 24 - 48 hours of exercise and do not require special treatment. Those who just started exercising can easily experience it by the contraction and relaxation of the muscles.

When you have muscle pains due to exercise, it is better to loosen your muscles by stretching before you start muscle exercise. Also, an adequate supply of water and nutrition after cardiovascular exercise, along with a nice rest is good for alleviating the symptoms.

If it prolongs for more than 72 hours, you may have had excessive exercise, so it is recommended that you lower the intensity of exercise and slowly increase. Muscle pains after exercising do not require treatment, but for serious injuries you can visit the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internal medicine, or family medicine, etc. and check up.

Slight pains in the muscles can get relieved after you rest. But for chronic muscle pains with sensory abnormalities such as stiffness, severe fatigue, dysfunction in exercise, skin inflammation or rash, headache, constipation or diarrhea, stomachache, anxiety, sleeping disorder, etc. along with other symptoms, it is recommended to get diagnosed at a hospital because other diseases may be the cause.

환절기 건강관리

Health Tips During Change of Seasons

① 개인위생

실제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 전염되고 있기 때문에 외출 후 반드시 손 씻기

① Personal hygiene

Since 70% of diseases are infected by hands, always wash your hands before and after you go outside.

② 충분한 수면

하루 6~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면역력을 강화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충분히 자는 것이 좋음

② Take a rest

6~7 hours of sleep everyday is recommended, especially during 11pm-3am when melatonin hormones, which strengthen immunity, are secreted.

③ 햇빛 보기

햇빛은 비타민D를 생성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줌

③ Sunlight

Receiving sunlight generates Vitamin D and helps immunity.

④ 규칙적인 운동

실제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 전염되고 있기 때문에 외출 후 반드시 손 씻기

④ Regular exercise

It is healthy to exercise for more than 30 minutes with light sweat at least 3 days in a week.

⑤ 수분섭취

하루에 1.5~ 2L 정도의 충분한 수분섭취를 통해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지한다. 이 때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음

⑤ Drink water

About 1.5-2L a day is enough so that the mucous membrane is not dry. Warm water is better than cold water.

⑥ 체온유지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36.5~37°C로 몸의 온도를 유지

⑥ Maintain body temperature

Keep it to 36.5~37°C which is when enzymes related to metabolism are most active.

⑦ 실내온도와 습도유지

실내온도는 19~23°C, 습도는 50~55%가 적정

⑦ Maintain indoor temperature and humidity

Indoor temperature is best at 19-23°C and humidity at 50-55%.

⑧ 피부관리

가을철 피부보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습을 위해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됨

⑧ Skin care

To prevent dry skin during autumn, it is helpful to moisturize your skin with lotion or cream.

Creative Corner

9학년 캐릭터 피규어

9th Grade Character Figures

10학년 흑지 소묘

10th Grade Black Paper Drawing

12학년 무드등

12th Grade Mood Lam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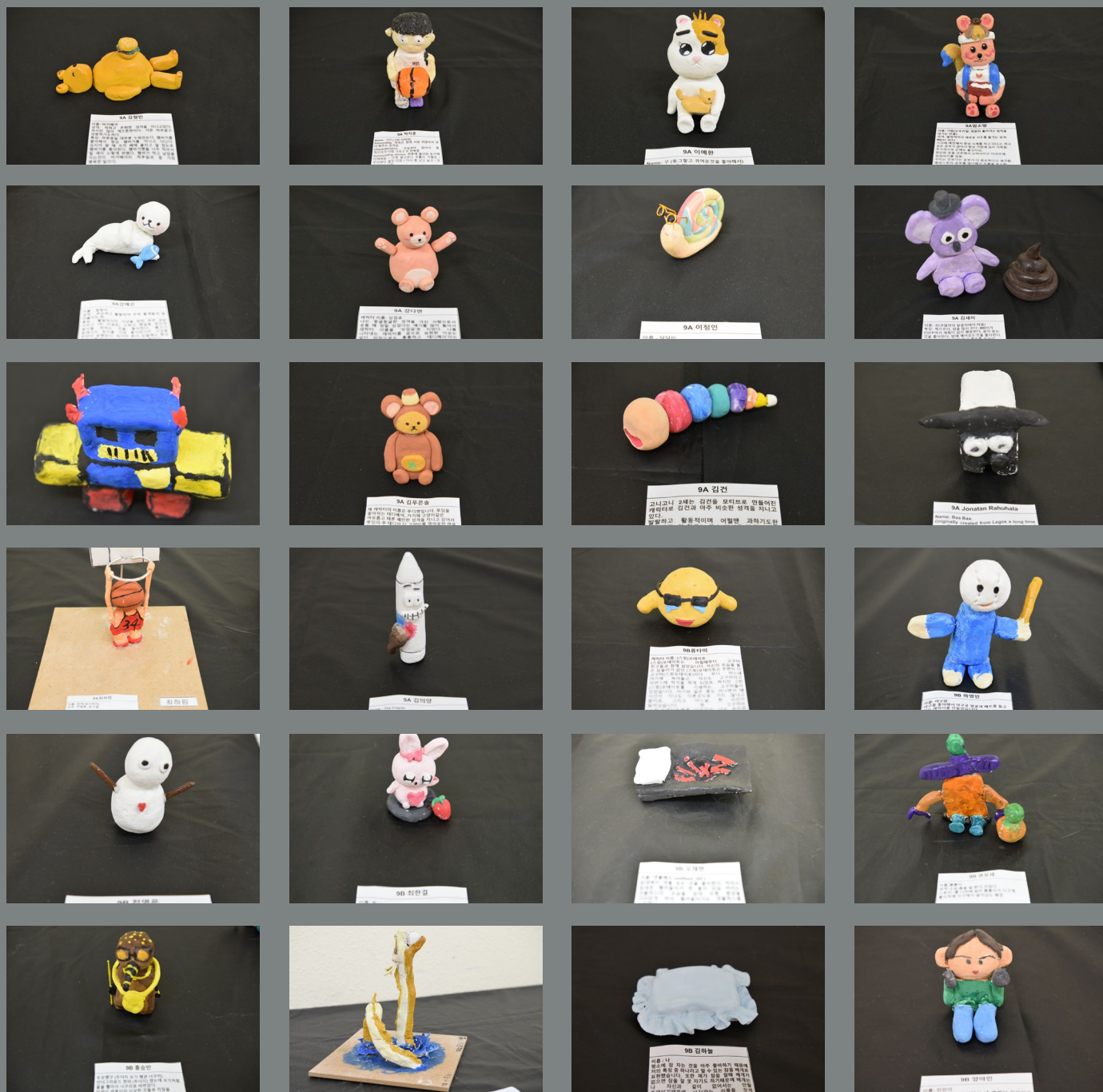
By 윤영실 | 중고등 미술 교사
Ms. Young Shil Yun · MHS Art Teacher

9학년 캐릭터 피규어

9th Grade Character Figures

학기초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닮은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피규어로 만들어 소개하는 글과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Students designed their own character to introduce themselves at the start of the semester, and exhibited their works with descriptions.





10학년 흑지 소묘

10th Grade Black Paper Drawing

검정 종이 위에 흰 펜과 색연필을 이용해 정밀묘사한 작품입니다.

Students drew in detail using black paper and a white pen.





12학년 무드등

12th Grade Mood Lamp

투명 아크릴판에 송곳으로 긁어 그림을 그리고 아랫쪽에 LED램프를 조사하여 만든 무드등입니다.

Using an awl, students each scratched off their drawing on a transparent acrylic plate and irradiated a LED lamp ben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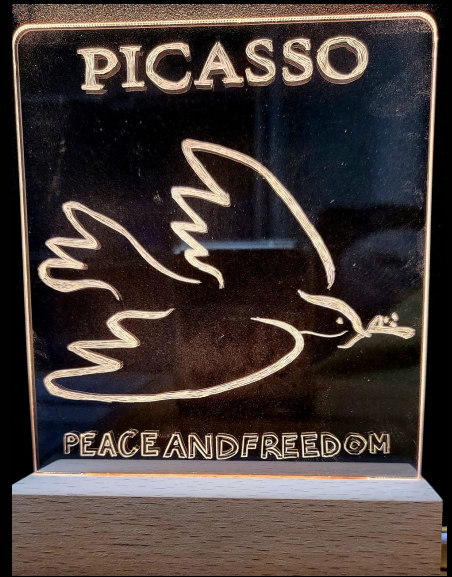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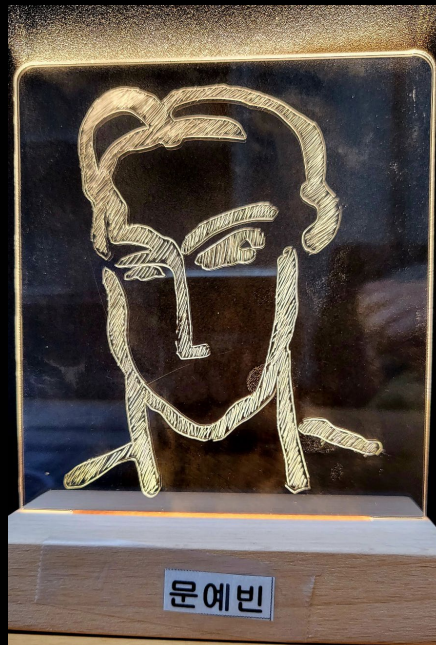
이혜선



이은우



김은호



문예빈



박소울



이에준



서예준



전민서



HIS Connection
Archive

2019 - 2021

<https://bit.ly/3v2RN43>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Renew
Our
Mind!